

# 한국농업의 어려움 반드시 극복해야

농업 농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농업의 중요기능을 인정하고 우리농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와 협력이다.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최근 세계금융시장의 어려움을 보면서 세계 각 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제성장이며 그로 인한 소득의 증가이기에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더 걱정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점진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 농업의 상황도 매우 어렵다. 기술과 자원이 결코 내세울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남의 탓만 할 수도 없으며 그래봐야 해결되는 것도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서로 손을 맞잡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보다 진취적으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상하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방법을 숙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간단하게나마 우리 농업을 둘러싼 상황과 변화를 정리해보고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기 때문

이다. 서로의 작은 지혜를 모으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믿는다.

### **‘농업·농촌 의미’ 공감대 형성 필요**

먼저 농산물을 둘러싼 시장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대세이다. 국가 간의 자원이동이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자체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의 식탁에 이미 많은 수입 식품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에 적지 않은 농산물을 팔고 있으며, 중국과 다른 나라에도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입은 못하겠다고 버틸 수가 있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아예 수출만하고 수입은 안하겠다는 것은 국가간 교역에서 바른 주장은 아닐 것이다.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다. 작년과 같은 곡물가격의 폭등은 아닐지 모르나 여전히 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다. 총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먹을 곡물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한다. 단지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필요시 곡물을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곡물을 사먹을 수 없다. 최근에는 곡물의 바이오연료로의 이용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하였다. 에너지와 결부하여 곡물류의 에너지 생산으로의

활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곡물을 구입해서 소비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팽배하다. 일본이 매우 적극적으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매진하는 것은 이 부분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어느 정도 먹을거리를 확보한 경우, 식품의 안전성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여전히 식량이 부족한 저개발국가에서 식품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발전, 사람들의 인식전환 등으로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중요한 농산물 선택의 가치기준으로 여긴다. 농산물 무역에서 가장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관세 장벽이 검역과 식품의 안전성이 아닐까 여겨진다.

범지구적인 온난화 현상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이 현상은 비단 농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생활패턴에 까지 다양한 분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열대성 어종이 우리 해안에서 잡히는 현상도 지구 온난화로 설명하고 있다. 농업의 입장에서 볼 때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는 농산물 생산량의 불안정성이다. 이것은 식량부족과 함께 국제 곡물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인구는 증가하지만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땅덩어리가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 지구에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다. 무한대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가 준비될 수 없다. 여기에 일부 토지의 사막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새로운 경작지를 만드는 경우 그 대부분은 밀림지역의 개발이고 이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기후와 강우 등의 불균형은 농산물의 생산량을 예측하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농업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농업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인식해야 한다.**

에너지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다. 현대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화석연료, 즉 석유이다. 이 석유가 고갈된다면, 특별한 대체재가 개발되어 공급되지 않는 한, 배도 항공기도,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다. 물론 공장들의 가동도 어렵게 될 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 간의 무역이 멈춰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보이지 않는 자원전쟁이 지금도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온난화문제도 완화한다는 취지의 녹색에

너지의 개발과 공급이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져오고 있다.

외부적인 상황과 함께 우리 농업의 상황도 밝은 것만은 아니다. 농업의 기반이 되는 우량농지가 충분하지 않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다.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식량의 자급률도 매우 낮다. 거의 모든 에너지가 자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요구는 끝이 없다. 선진 농업국에 비해 자본기술 집약적인 농업으로 재편되었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이래저래 어렵기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그곳에는 해결책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희망을 갖고 고심하고 길을 찾다보면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농업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농업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농업과 농촌이 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난관 돌파 위한 의지·협력 가장 중요

둘째,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얼마정도 자급해야 하는지 그

## 한국농업의 어려움 반드시 극복해야

리고 그 방법으로 무엇을 활용해야할 것인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대역할은 역시 식량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양이 확보된 연후에 안전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셋째, 안전한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이 시대에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욕구는 거부하기 어려운 덕목이다. 농산물 생산비를 줄이는 기본적인 노력에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자본집약적인 농업의 선진화를 통해 농산물 수출도 강화해야 한다. 옥수수 와 밀과 같은 대규모 토지조방적인 농산물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는 어렵다. 적어도 수출입에서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기술과 자본을 집약적으로 활용하고 경영 역시 선진화할 경우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경쟁력의 중요한 근간인 기술개발의 선택과 집중원리 적용 강화이다. 모든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제고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핵심기술에 연구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나눠 먹기식의 자원 배분은 경계해야 한다.

여섯째, 지구온난화와 녹색성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농업내 탄소 배출원을 찾아내고 이것을 줄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화학비료, 농기계와 농약의 적절한 사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작목의 재배치, 입식조건의 변화에 따른 대안 강구, 녹색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더욱 중요한 녹색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을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끝으로 농업관련 전후방 연관 산업의 클러스트화, 생산자의 조직화와 유통혁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농촌사회 안전망의 구축, 농촌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도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 세계는 금융과 실물경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불안정이 지속될 지 알 수 없다.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합심하여 타개책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하고자하는 의지와 협력이다.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곤경을 헤쳐 나가는 데는 너와 내가 없다. 정부와 민간도 없다. 농업인과 비농업인도 없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일 뿐이다. Y